

작품 내용

제 목	404: 원작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내 용	사람들은 모든 것이 기록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었다. 태어난 순간부터 남겨지는 정보, 한 번 업로드된 뒤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데이터, 수억 개의 검색 결과 속에서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는 이름들.. 과거에는 불에 타거나 찢겨야만 사라졌던 기록들이 이제는 단순한 삭제 버튼 하나로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쉽게 잊고 있었다. 기술은 기억하는 법을 발전시켰지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지는 않았다. 나는 32세 나혜경, 현재 기록 복원국에서 일한다. 내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실수로 지운 파일과 워포인트 파일을 찾아주거나 파손된 하드디스크를 살려내는 일이 아니다. 디지털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시작점을 잃어버린 기록들의 진짜 주인을 찾아주는 일이다. 복원국의 하루는 대개 쏘한 의뢰들로 채워진다. 누군가의 빛바랜 졸업앨범 스캔본에서 사라진 친구의 이름, 십수 년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를 떠돌며 출처가 유실된 감성적인 글귀, 몇 년 동안 배경음악으로 쓰였지만 아무도 만든 이를 모르는 15초짜리 멜로디 같은 것들. 어떤 그림은 수천 번 공유되고 복사되는 동안 모서리에 새겨졌던 작가의 서명을 잃어버렸고, 어떤 문장은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누군가의 명언으로 포장되기도 했다. 사람들은 콘텐츠를 끊임없이 소비하고 유희하면서도 그것이 어디에서 피어났는지는 묻지 않았다. 마치 숲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고 감탄하면서도, 그 꽃이 어느 땅의 영양분을 먹고 자랐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지만 그날 내 책상 위에 올라온 사건 파일은 이전의 것들과 조금 달랐다. 대상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현대 소설이었다.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서점가를 점령했고, 영화와 드라마, 게임으로 재창작되며 한 시대를 바꾼 거대한 지식재산권(IP)이 된 작품.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앙 제어 시스템의 원작자 란에는 차가운 문구만 띄워져 있었다. 원작자 : 확인 불가 404 : Original creator not found. 처음에는 시스템 해킹이나 단순한 데이터 렌더링 오류인 줄 알고 실소했다. 매초 수억 기가 바이트의 데이터가 오가는 현대 사회에서, 전 세계인이 다 아는 거장 소설가의 이름이 지워지다니. 하지만 담당자가 건넨 이력서와 로그 기록을 넘겨보면서 웃음은 싹 달아났다.. 작품의 수록 이력, 최초 출간일, 수천 건의 수정 내역, 해외 번역 계약서, 심지어 수백만 개에 달하는 독자들의 리뷰 데이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딱 하나,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써 내려간 사람의 흔적만 완벽하게 증발해 있었다. 나는 소설의 첫 번째 흔적을 찾기 위해 수년 전 폐쇄된 구형 서버의 심해까지 덩 트레이싱을 시도했다. 서비스가 종료된 옛 블로그 플랫폼,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 가상 저장 장치, 오래 전에 폐기되어 먼지가 쌓인 계정 정보

들. 밤을 지새우며 수만 줄의 파손된 로그 코드를 훑는 동안, 거대한 디지털 박물관의 어두운 수장고를 홀로 플래시 하나에 의존해 걸어가는 듯한 정적과 쓸쓸함이 몰려왔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나는 20년 전 파기된 한 개인용 클라우드 구석에서 복구 불가능 판정을 받은 데이터 조각 하나를 건져 올렸다. 확장자조차 불안정하게 얹혀 있던 파일의 이름은 이상하리만치 친숙하고 평범했다.

소설_최종본_진짜최종본.txt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다. 첫 장에 적힌 문장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매끄럽고 수려한 소설의 첫 머리와 달랐다. 문장은 거칠고 둔탁했으며, 주인공의 이름은 몇 번이나 빗금이 그어진 채 바뀌어 있었다. 모니터 화면 가득 붉은색 수정 표시와 “이 표현이 맞을까?”, “잠이 오지 않는다” 같은 창작자의 고독한 혼잣말이 주석으로 빼곡히 남아 있었다. 수많은 고민과 밤샘의 흔적들. 하지만 분명히 세상을 흔든 그 이야기의 모태였다. 그리고 텍스트 파일의 가장 마지막 장. 문단 아래에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다.

“이 이야기가 언젠가 바람을 타고 누군가의 마음에 닿기를 바란다. 내가 사라져도 괜찮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지만은, 부디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밑에는 낯선 이름 하나가 덩덤하게 적혀 있었다.

‘오춘영’

나는 즉시 그 이름으로 모든 행정 및 문학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했다. 결과는 무서울 만큼 조용했다. 포털 사이트에 프로필 사진도, 흔한 인터뷰 기사 한 줄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시간과 영혼을 쏟아부어 거대한 세계를 창조해 낸 뒤,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세계의 그림자 뒤로 숨어버린 듯했다. 그가 모니터 불빛에 의존해 홀로 고민했던 무수한 밤들, 단어 하나를 고치기 위해 머리는 쥐어뜯던 순간들, 첫 완성본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버텨낸 불안한 긴자오이 시간들. 이 모든 거대한 삶의 궤적이 ‘원작자 불명’이라는 단 한 줄의 오류 코드 뒤로 희미하게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복원 작업을 거쳐 원작자 정보가 정상적으로 되찾아졌다는 소식은 세상에 생각보다 조용하게 퍼졌다. 사람들은 잠시 건성으로 아는 척을 했다. “아, 그 작품 쓴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하고 넘어가는 이들이 있었고, 일부는 거칠게 반문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감동을 받은 작품 그 자체이지, 작가가 누구냐가 뭐가 중요한가요?”

틀린 말처럼 들리지는 않는다. 창작물은 세상에 나온 순간 작가의 손을 떠나 독자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한다.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영감이 되며, 또 다른 창작을 낳는 씨앗이 된다. 무한한 복제와 재가공이 가능한 디지털 시대에 창작물은 이미 모두의 공유재가 되어버린 면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처음 그 세계를 만들어 낸 사람의 존재와 노고까지 지워도 된다는 정당화가 될 수는 없다. 누군가가 자신의 삶과 시간을 깎아 만들어 낸 창작물의 시작점을 기억하는 일, 그 사람의 첫 마음을 존중하고 올바른 출처를 남기는 일. 어쩌면 그것은 무분별하게 콘텐츠를 소비하는 율가 창작자와 작품에 갖추어야 할 가장 최

소한의 윤리이자 예의일 것이다.

며칠 뒤, 나는 시스템에 접속해 다시 한 번 소설의 정보 창을 확인했다. 자극적으로 반짝이 던 오류 메시지는 깨끗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기록이 띄워져 있었다.

‘Original creator : 확인 완료’

나는 화면 속 이름을 오래 바라보았다.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지금도 아무도 모르는 방 안에서 문장을 고치고, 그림을 그리고, 멜로디를 만들고 있을 것이다. 언젠가 그 작품이 세상에 퍼졌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작품만이 아닐 것이다. 그 작품이 처음 태어난 순간과, 그 순간을 만들어 낸 사람까지.